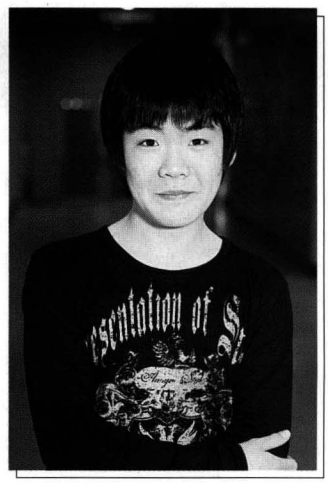
《발끝으로 서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이루어 가는 것이다

12살 소녀의 유학일기. 발레리나를 꿈꾸는 당찬 소녀 재인의 유학생활을 통해 꿈을 품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은 임정진 작가의 《발끝으로 서다》를 만나봅니다.

취재 · 정리_송보경 기자

조일호 (남 · 17)
성남시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 /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미디어기획단



이 책을 읽고 우선 발레에 대해 많은 것을 안 것 같다. 주인공의 열정이 나에게 발레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재인은 진심으로 발레를 사랑한다. 나 또한 축구를 좋아하는 것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주인공과는 다르다. 나와는 달리 진로를 발레에 목표로 하고 있는 주인공과의 차이다.

주인공은 영국 학교에서 헌신적인 노력 끝에 자랑스럽게 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애들에게도 사과를 받는다.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는가! 나에게는 정말 그 장면이 가장 감격스러웠고 아직까지도 인상이 깊게 남는다.

책을 읽고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모두에게 외면당할 때의 서러움을 읽는 자체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서러움이 나에게 전이되어 화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재인을 괴롭혔던 친구가 처음부터 재인을 따뜻하게 맞이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느꼈다. 이런 부분의 느낌은 소극적인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있는 학교 안에서 다른 외진 지역이나, 외국에서 온 학생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서러움 말고도 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자랑스럽게 졸업한 재인을 통해 현재의 나에게 인내심과 꿈이라는 기폭제를 던져 주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나에게도 할 수 있다는 큰 동기부여를 선물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작품들을 더 많이 읽어보고 싶다.

Q 궁금해요

이 글을 쓰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요?

A 임 작가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리고 싶었고 노력의 자취들이 훗날 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Q 궁금해요

발레를 같이 배웠던 다른 친구들의 미래도 정말 궁금합니다.

A 임 작가

재인이 어른이 된 후 그 친구들에 대해 정확히 물어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그 중 소수만 발레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역시 뮤지컬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합니다.

전훈 (남 · 18)
성남시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보컬동아리(the#) 대표

책을 읽고 난 후의 마음을 말하기 앞서 저로서는 이 책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겐 정말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발끝으로 서다》. 제목부터 단지 발레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성공했다는 내용일거라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지금 청소년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의 꿈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것처럼 정말 넘어지고 넘어져도 위태로운 발끝으로라도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지라는 느낌을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 가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발레 때문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에 변화를 준 구절입니다. 지금의 청소년기는 한참 자신의 꿈을 정하여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하루 종일 공부만을 강요하여 자신들이 꿈꾸고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대입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입시풍토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대입만을 최우선으로 강요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빠져 들었었지만 지금은 재인과 같은 맘으로 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위태롭게 서있는, 발끝이라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발끝으로 설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청소년기에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잠깐의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키우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Q 궁금해요

《발끝으로 서다》라는 제목의 확실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A 임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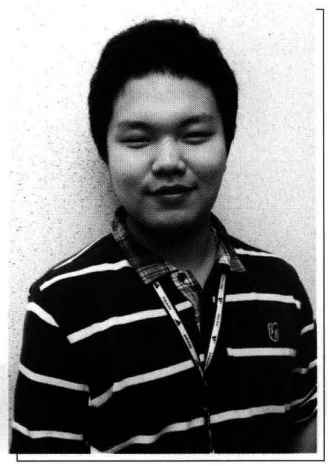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발레를 하기 위해 발끝으로 선 모습과 발끝으로 서서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보려는 청소년기의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심정을 상징합니다.

Q 궁금해요

질문은 아니지만 꿈을 펼쳐 나아가야하는 시기임에도 힘들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 작가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임 작가

청소년기엔 꿈을 키우는 시기라 해야 맞겠지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단번에 되는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기 바랍니다.



이정상 (남 · 17)
성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미디어기획단

난 발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발레에 대해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 동안 발레를 지루한 예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내가 발레리나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읽고 주체하지 못할 흥분과 감동으로 밤을 지새웠다.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홀로 영국 유학을 떠난 12살 소녀인 재인의 이야기를 다룬 《발끝으로 서다》는 임정진 작가가 십수 년 전 영국에서 알게 된 실제 소녀 발레리나의 유학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생생한 소설이다.

재인이의 가족은 수출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재인은 가족이 뉴욕에 있을 때 우연히 탭댄스를 배우러 갔다가 처음 발레를 접한다. 그 뒤 재인의 가족은 잠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쿠웨이트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때 영국의 '로열발레단원' 이었던 교장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재인은 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영국의 '엘름허스트 기숙 발레학교' 로 홀로 유학을 떠난다. 재인의 유학생활은 낯설고 힘들기만 하다. 하지만 재인은 그곳에서 발레를 배우며 차츰 친구들을 사귀어 가고 짝사랑도 경험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재작년에 3개월간 캐나다에 혼자 다녀왔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에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란 정말 고역이었다. 더군다나 소설 속의 재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캐나다에 가있는 동안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홈스테이로 머무르던 집에 호스트 맘을 붙잡고 울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 곳에 있던 3개월 동안 내 영어 실력은 많이 향상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는 나에게 큰 자극이 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꿈은 진정으로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고 노력할 때 품안에 안겨질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Q 궁금해요

재인의 영국학교 생활이 사실적입니다. 작가님의 경험인가요. 취재에 의해서 알게 되신 건가요.

A 임 작가

재인이의 일기를 토대로 썼습니다. 재인이가 영국유학시절에 일기를 충실하게 썼던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쓴 일기라 재인이가 제게 설명해주면서 같이 다 읽었습니다. 재인은 아는 분의 따님이었는데, 솔직하고 밝은 성격이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재인이와 많은 대화를 하여 일기에 없던 이야기도 많이 보충했습니다. 영국에서의 학교생활은 거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임정진 작가 인터뷰

Q 작품을 보면서 12살 소녀의 야무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인공 재인과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은 드물지만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소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셨던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 *예술가로 산다는 것의 어려움, 유학생활의 어려움, 자신의 재능과 꿈, 현실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의 어려움,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 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 있지만, 유학생활을 다룬 책이 거의 없어 실제적인 유학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Q 작품의 주인공이 실제 어느 소녀의 이야기라고 밝히셨는데 쓰시면서 가장 초점을 맞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실체와 현실의 가혹함에 대해 더욱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크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몰라서는 그 꿈은 늘 허황된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낭만적인 생각만으로 성공이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치열한 자기 개발과 훈련, 노력이 있어야 꿈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Q 이야기 진행이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타의 일반적인 결말과 달리 여지를 많이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지요.

– *솔직히 말해서 재인은 현실에서 발레리나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청소년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는 결말을 갖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다른 길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재인은 또 수많은 방황과 고난을 겪었기에, 소설에서 섣부른 희망으로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Q 주인공 재인은 '조기유학'을 자청해서 시작한 것인데요.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와 환경에 의해 해외로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품을 위해 청소년들의 모습을 가까이 살피실 기회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올바른 성장'

이 아닌 최근 청소년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작가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요.

– *자신이 원하는 게 무언지 알지 못하고, 찾아보려 애쓰지도 못하고 이런 저런 상황에 떠밀려 사는 청소년기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혼자 있는, 혼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요즘 사람들은(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바쁘긴 한데 더욱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만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찾아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예전에 출간된 책 《가슴속엔 박하향》을 손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변한 건가요. 혹시 시대와 환경이 변했으므로 설정과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가족의 중요성 부각 등과 같은….

– *영국서 만났던 친구들 을 너무 많이 등장시켜서 번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등장인물을 줄인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Q 청소년을 위한 문학작품이 활발하게 나오길 독자로서 기대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작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지붕 낮은 집》은 부모님세대와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올 하반기에 새로 쓰려고 하는 작품은 시대적 배경을 조금 달리 해보려 합니다. 아마도 그 책은 내년 여름에나 나올 것입니다.*

임정진님은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 1986년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장원으로 입상, 1988년 '계몽사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동화 《개들도 학교에 가고 싶다》 《나보다 작은 형》 《상어를 사랑한 인어 공주》, 장편소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붕 낮은 집》 등이 있다.